

김경웅 교수, (사)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 선출

- '23.1월부터 제31대 회장으로 활동... 지구환경문제의 과학적 접근과 문제해결 위한 공동의 노력 모색 및 다양한 학술 활동 기대



▲ 지구·환경공학부 김경웅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지구·환경공학부 김경웅 교수(국제환경연구소 소장)가 (사)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31대 회장에 선출됐다.

(사)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지난 12월 2일(금)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, 김 교수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 (사)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31대 회장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.

(사)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의 학회로 자원 및 환경지질분야에 관련된 기초과학의 연구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8년도에 설립되었다.

최근에는 광물자원 확보와 이와 관련된 환경 이슈 등 여러 학문 간의 융합연구를 강조하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지구환경문제를 다루는 지구과학계의 대표적인 전문가집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.

또한 지구환경문제의 과학적 접근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,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의 공유 및 제공, 산학연 협력연구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.

김 교수는 1997년도에 지스트에 부임한 이후 지구·환경공학부장,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국제환경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, **영국지질학회 펠로우 및 여러 SCI급 국제저널의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**이다.

김경웅 교수는 “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문제뿐 아니라 전략광물자원 확보와 이와 관련된 환경 이슈에 대한 해결 기술과 과학기술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